

제10회 석유세미나 종합토론 (全文)

- 대한석유협회 홍보실 -

- **사 회** : 이 회 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
- **주제발표** : 안 병 훈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황 호 승 (대한석유협회 부회장)
 Dr. EKLOF (美國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 수석컨설턴트)
- **토 론** : 장 석 정 (동력자원부 자원정책실장)
 김 태 유 (서울대학교 공대 교수)

▲사회 : 黃부회장님 혈색을 파서는 석유산업이 허약 체질이라는 것이 얼른 와 닫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발표의 고조된 분위기를 깨지 않고 토론에 연결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곧 이어서 지정 토론 두분의 말씀을 듣고 공동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음 토론에 임해주실 분은 동자부의 자원정책 실장이신 張錫靖 실장님께서 오래동안 동력자원부에 근무하셔서 더 이상 제가 여러분께 소개 말씀이 필요없겠습니다.

오늘 조희철의원(平民)께서는 국회에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때부터 참관을 해주셨습니다.

張실장님께서 지금부터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張錫靖 : 동자부에서 정유산업에 관한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원정책실장입니다.

물론 이런 세미나에 제가 나오는 것은 나와서 여러분

과 같이 방청석에서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지만,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석유산업의 나아갈 방향, 또는 지금의 문제점,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 같다 하는 말씀도 저희가 경청을 하고 저희가 방향을 세우는데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토론자로 올라오는 것은 제 위치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정부의 입장만 얘기하려 온 것 같이 되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참 위치가 애매합니다. 또 여기서 정부가 뭘 잘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정부의 목표가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야 토론도 재미가 있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냐, 그런 것을 한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근래에 와서 모든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다 각 분야에서 얘기하시는 그런 이론과 현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그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국가적으로 볼 적에 어떤 정책을 하는 것이 바른 정책이나? 국가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이 좋으나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생각을 해서 그 중에 어떤 것을 택해가지고 정책으로 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책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에 100% 옳다고만 생각이 되느냐? 물론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찬반의견이 있게 마련이고 또 거기에 정책적인 판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현행 제도를 검토하고 다시 그 의의를 한번 새겨보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데 대해 토론하는 것은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정부도 밖에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또는 여러 각계에서 얘기하시는 것을 경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많은 얘기를 들어왔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정유산업이라는 것이 다른 산업에 비해 국가적으로 기간산업이고 모든 경제활동의 밑바탕이 되는 것인 만큼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업을 어떻게 건설하게 육성해서 국가 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하신대로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정책들이 그런 바탕 위에서 새겨져 왔습니다마는 근래에 와서 여러가지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서두에 저희 장관님의 축사에서 말씀이 있었고 토론자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국제환경이 여러가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고유가시대가 올 것이라는 얘기가 최근에 계속 나왔습니다마는 페르시아만 사태를 통해 이미 고유가시대는 들어섰습니다. 물론 페르시아만 사태가 어떻게 끝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가격의 예측이 폭등과 또는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결국 '80년대 저유가시대에서 떠나 이제 고유가시대로 왔습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은 어떠한 것이냐 하는 이런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제규모도 '80년대와 '90년대에는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정유산업만 보더라도 현재 석유수요가 하루에 약 92만배럴 정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내년이면

100만배럴을 소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과 수출을 합하면 금년도 이미 100만배럴을 쓰는 것이 됩니다. 하루에 100만배럴이라는 규모는 상당히 큰 규모이고 100만배럴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석유라는 품종이 하나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휘발유, 등유, 경유 등등 여러가지 품종이 있기 때문에 원유를 들여다가 정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등유, 휘발유, B-C油를 쓰는 것 같이 그런 비율로 생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계절적으로 수요가 어떤 품종은 많이 되고 어떤 것은 적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일부는 남아서 팔고 일부는 해외에서 사오고 하는 것이 계절적으로도 일어나게 되고 또 지속적으로도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요가 이렇게 계절적으로 바뀌고 또 우리의 구조가 외국구조와는 틀리기 때문에 수출입이 계속 일어나는 이런 상황속에서 지금과 같이 정부가 가격을 고시가격으로 묶어두면 수출입에 여러가지 장애요인이 될 것은 여러분들이나 지나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그것을 규제관리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소비구조 자체가 커지고 복잡해졌을 뿐 아니라 또 여러분이 토의하신 바와 같이 우루과이 라운드라든지 다자간 협정같은 것을 통해 우리 경제가 이제는 자체내의 경제가 아니라 세계 속에 개방되는 경제 운영이 필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의 효율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우리는 개방화시대로 나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볼적에 우리도 지금과 같은 정유산업에 대한 현행의 정부정책이라든가 규제라든가 이런 것을 재고해야 될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까도 발표되었습니다만, 환경규제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과거의 정책을 재검토해야 될 이런 시점에 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좋은 말씀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경청을 하고 또 발표하신 것 중에 저희 의견과도 상당히 의견이 틀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석유협회는 동자부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지만 또 정유사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동자부 사람이 나와 있으면 또 동자부 거슬리는 얘기는 하지 않지



앞으로는 가격도 자율화하고 수출입도 자율화해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내년부터 시행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윤율에 대한 문제는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않겠느냐? 또는 동자부와 의견이 틀리는 얘기는 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보면 저희와 의견이 상당히 틀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석유협회 黃부회장님께서 이윤율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한마디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석유산업에 대한 가격의 규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유 산업은 참여의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정유업은 지금 5개정유사 외에 정부가 신규참여를 금지하고 있고 거기에 상응을 해서 가격을 규제하는데 소비자가격을 어떻게 하느냐, 그 가격을 고시하고 판매가격을 정하는 것은 기업의 적정이윤이라는 것을 생각해 가지고 가격을 고시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어떻게 기준을 하고 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전 16.5% 세후 10%를 기준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석유협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정유사의 이윤율이 과거에 보면 7.3%다, 다른 제조업보다도 이윤율이 떨어진다, 이것이 큰 포인트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지난 제조업 평균이윤율이 8%인데 그 평균수준에도 밑도는 7.3%가 되어서 매우 낮다 하는 말씀인데 숫자적으로 보면 8%보다 7.3%가 상당히 낮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정유사가 얘기하는 그 이윤이라는 개념, 기업의 이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가지 자본에 대한 적정보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기업이라는 것은 그 이윤율이라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 테이킹, 그 위험부담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일반 제조업의 평균이 8%인데 석유산업은 수준이 낮고 높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둘째로 하겠습니까만, 10%의

이윤율은 정부가 보장을 한다 이것입니다. 경기가 좋은 나쁘든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정유사로 하여금 영업을 하도록 하면서 또 경기가 좋은 안좋은 10%의 이윤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10%가 낮으냐? 또는 안 낮으냐 하는 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경기가 좋을 때는 정유사의 이윤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낮을 것이고 경기가 나쁠 때에는 정유사의 이윤율이 높을 것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파묻혀 가지고 정유사의 이윤율이 낮으니까 아무 얘기가 없고 정유사들은 생각하기에 다른 부분에는 20%, 15%가 이윤율인데 왜 10%냐고 상당히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때는 노출이 안되고 경기가 불경기가 되어가지고 일반 제조업의 이윤율이 5%나 3%로 떨어질 때는 정유사는 10%이윤을 정부에서 보장해 준다고 하면 온 국민들이 볼 때는 정유사가 어떻게 해서 경기가 형편없어서 이윤율이 4~5%인데 정유사는 왜 10%나 보장해 주느냐 해서 그때는 정유사에 화살이 가기 때문에 정유사는 이윤율의 규제라는 것이 상당히 여론상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첫째 리스크에 대한 테이킹이 없다. 위험 부담률이 없이 보장되는 이윤이라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정부가 10%를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정유사의 이윤율은 6%에서 7%라는 수준이 되는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그것은 정부가 고시를 해서 고시가격으로 판매하도록 가격을 정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업간의 경쟁에 의해서 가격을 고시가격대로 못 받고 파는 것이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고시

로 정한 것보다도 밑으로 받는 것은 정부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차가 나는 것은 결국 기업간의 경쟁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부가 고시가격을 하기 때문에 적정 이윤율이 너무 낮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아마 가격이 고시가격을 떠나서 자율화가 되었을 때 10%보다 낮은 것은 정부보고 왜 이렇게 이윤율이 낮은가 하는 말씀을 안 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고시가격으로 판매한다면 10%의 이윤이 남아 댈텐데도 불구하고 낮은 것은 자율화를 하더라도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상당히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90년대를 맞이하여 물론 가격도 자율화를 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수출입도 자율화시킬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5개 정유사가 상당한 규모로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경쟁체제로 가더라도 소위 과거에 생각하는 정유업하면 가격이 독점적인 기업이다 하는 그런 이미지 속에서 정부가 독점이윤을 규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떠나서 경쟁체제로도 적정가격이 유지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격도 자율화하고 수출입도 자율화해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해 가도록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부터 시행을 해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므로 이런 이윤율에 대한 문제는 제기되지 않을까 하고 봅니다.

▲사회 : 감사합니다.

질문서에 기재를 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마지막 지정 토론자께서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 앞의 사회적으로 전달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지정 토론자는 金泰由교수님이십니다. 金泰由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자원공학과에서 자원경제학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자원산업, 에너지산업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계십니다.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金泰由 : 방금 소개받은 金泰由입니다.

저는 지금 사회를 보시는 李會晟원장님처럼 국책연구소의 소장도 아니고, 조금 전에 토론해주신 張실장님처럼 동력자원부와 같은 국가기관의 상급관료도 아니고, 어떤 이해에 엮갈린 업체의 대표도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솔직하게 제 의견을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오늘 주제를 발표해 주신 安柄勳교수님의 의견과 黃鎬升 부회장님, 두분의 주제발표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에너지업계, 특히 석유업계가 처하고 있는 모든 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백과사전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사족을 다는 것보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조명해 볼까 생각을 합니다.

이 고유가에 대비한 대응전략으로서 安교수님께서 정제설비를 고도화하고 원유의 자급능력을 향상시키며, 원유의 제품을 비축해야 된다고 하였고, 개방화에 대한 대응과제로서 유통단계의 대형화, 경영다각화, 국내 석유산업의 좀더 공격적인 국제화, 그리고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탈황설비를 건설하고 이산화탄소 방출 제한에 대비하기 위해서 연료를 대체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석유협회 黃鎬升 부회장님께서도 석유제품 수입비중을 감축하기 위해서 정제시설을 새로이 확보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업을 다각화해서 대체에너지라든가 석유화학쪽으로 정유업계의 사업을 다양화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해외유전개발을 하고 선진에너지 이용기기 개발을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장관님은 축사를 통해서 세계 에너지를 우리 것으로 만드는 국산화정책을 써야 되겠다고 말씀하셨고, 정부의 에너지 소비절약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을 볼 것 같으면,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시스템을 실현해야 되겠고, 또 원천적 절약기술의 개발 및 보급촉진, 그리고 집단에너지 공급체계의 획기적인 확대, 절약촉진을 위한 지원제도의 강화와 같은 대안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학계에서 安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안과 업계를 대표해서 黃鎬升 부회장님의 대안, 그리고 정부의 종합대책을 다 합치면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골치 아픈 고유가시대의 석유산업의 대응전략은 완벽하게 대응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1990년 11월 16일 석유협회 세미나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가? 여러분들이 돌아서서 이 방을 나설때 생각해 보시면 하나도 해결이 안됐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해결책은 다 있는데,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았는가? 문제는 간단합니다. 여기 제안된 모든 해결책이 모두가 거대한

자금을 소모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자금 없이는 하나도 수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에 투입할 자금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나라 국제수지는 지금 적자로 치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채권국이 될 꿈이 점점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6공화국은 200만호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거창한 공약을 내세웠으나 지지부진,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돈이 없어서입니다. 고속전철이라든가 서해안 고속도로사업도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 이제 TV 쪽이나 팔아 먹던 우리나라 제조업이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진 HDTV같은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거창한 시설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 에너지업계를 위해서 돈을 내서 이러한 대응책들을 실현시켜 주겠는가 하는 의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답은 없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 왔느냐? 어떻게 했어야지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담이지만, 작년도에 석유협회 세미나에 제가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서 상당히 죄송하지만 자리를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 1988년도에 와서 한 얘기를 똑같이 반복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유가의 자율화는 유가의 인화를 의미하는 아주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가는 자율화해서는 안된다 높여야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주장들의 모든 내용이 「석유협회보」 1988년 11월호에 31페이지에서 36페이지 사이에 소상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론에 의해서 말씀드리기를 저유가는 과소비를 부르고, 과소비는 과잉생산을 부르고, 과잉생산은 고갈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자원경제학적 측면에서 이러한 것을 약소환이라고 표현을 하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때는 석유값이 쪼그아들기 때문에 고민이고 요새는 과소비 때문에 고민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오셔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1, 2차 석유위기 이전에 유전가동률이나 석유의존도가 상당히 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사태가 국제유가의 불안요인이

그 당시에는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대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우리가 원유비축을 60일분을 목표로 해서 비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선진국에서는 90일분을 목표로 비축을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너무 약소하지 않느냐? 그리고 고유가나 저유가나 하는 유가의 개념을 맹목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유가가 어떤가? 특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본에 비해서 그 당시에 말씀드리기를 일본의 석유세가 배럴당 15달러 84센트입니다. 우리나라 세금과 당시 석유기금을 다 합쳐도 그것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韓國의 에너지가격을 100으로 볼 때 일본의 경유가격은 227, LPG가격은 337,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한 저유가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가지 불평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기를 현실적으로 물가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에너지가격, 특히 석유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오늘의 편의를 위해서 내일을 포기하는 방법이 아닌가? 현실적인 문제를 위해서 미래를 희생하고 미래에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씀드렸던 것이 활자화되어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누렸던 현실이 아닌 문제가 많은 미래에 도달해서 또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1988년도 그 좋은 시설에 이런 얘기를 해도 아무도 별로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는데 그 후로는 그런 사인이 없었느냐? 작년 '89년도 말에 일본의 미쓰이연구소에서 에너지 위기를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일간지에도 1면에 톱으로 나오고 1993년쯤이면 석유위기가 온다. 석유위기의 정도는 석유가격이 배럴당 29달러 50센트 정도일 것이다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속속 뒤를 이어서 하버드대학교라든가 英國의 클라이노드 증권회사 같은데서 고유가에 대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전망이 나올 수 있었던 기저는 아까 黃부회장님께서 자료로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OPEC의 유전가동률이 80%를 상회하고 OPEC에 대한 세계 석유의존도가 50%에 달하며, 세계 총에너지 소비중에 석유의 비중이 50%를 넘어서게 되면 1차, 2차 석유파동 직전과 같은 상황이 된다는 것으로 해서 다시 석유위기

“
우리가 오늘의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내일의 문제를
앞서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가지고 나가야지만이 우리나라
에너지문제가 우리 국가전체, 국민모두의 복지를 발전시키고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가 온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상황이 숫자로서 통계로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후세인이 마음만 졸 잘 먹었으면 유가가 오르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망연한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黃부회장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조목조목 해주셨는데, 신약시대 이전에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아랍과 이스라엘의 분쟁은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고 몇 천년을 유지되어 왔습니다. 또 페르시아인과 아랍인의 패권 다툼은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대변되고 있는데 이것도 몇 천년동안 해결안된 분쟁의 소지입니다.

또 지금 소련까지 자유화되고 있는 21세기 개명천지에 중세시대에 볼 수 있는 절대 군주국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 자유화가 불이 붙으면 제2, 제3, 제4의 이란혁명같은 사태가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한 불씨를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조그마한 이란-이라크 사태가 생기지 않았으면 문제가 안생겼을 것이다 하는 순진한 착상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적인 동향이나 경제지수에 대해서 선진국은 어떻게 대응했느냐 하면 日本은 '89년도에 석유비축을 140일분에서 160일분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석유의 60%를 자급하고 있는 美國은 석유 비축량을 7억5000만배럴에서 10억배럴로 증가시키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쓰고 있었느냐 하면 '87년 당시에 57일분을 목표로 3,800만배럴의 원유를 비축했는데 그 당시의 하루 소비량이 68만6,000배럴 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올 상반기의 하루

소비량이 94만6,000배럴로 늘었고, 비축 절대량은 전혀 늘지 않았으니 여러분들께서 우리 비축량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도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외 제품 비축이라든가 정유사의 일부 비축도 있지만 그것은 전략비축이라기 보다는 경제적인 비축으로서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근본적인 유가정책은 동력자원부보다는 훨씬 더 상위 정책 결정기관의 결정이라고 우리 국민들은 대강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張실장님께서 나오셨지만 동력자원부에 대한 불평은 뒤에 또 드리기로 하고 좀더 상위기관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오늘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정책을 써 왔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유가 시대에 이러한 오늘과 같은 고유가시대에 대비한 그러한 잘못된 소위 에너지정책의 실패를 이러한 상황이 울출 몰라서, 무지에 의한 정책이나? 아니면 그저 요행히 저유가가 유지되기를 기대했던 무모한 정책이나? 아니면 미래의 국민복지나 우리 국가경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우선 오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무책임한데서 오는 정책인가?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는데 결론은 여러분 각자가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여러가지의 문제와 정책적인 실패가 일어난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한 부분까지 조목조목 말씀드릴 형편이 아닌 것 같아서 우선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독립적인 장기적인 에너지자원정책이 없었다 하는 데 있습니다.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최종 결정단계에서 실행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경제정책을 5년 단위의 정책으로 봅니다. 여러분

귀에 아주 익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국가에 따라서는 3개년계획, 혹은 7개년계획을 시도한 나라도 있지만, 5개년계획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었다 하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에너지정책은 정책수행기간이 몇년입니까? 원자력발전소 한기를 우리가 짓기로 결정을 하고 나면 전기가 흘러나오기까지 과거에는 10년, 지금은 8년 반 정도 걸립니다. 석유는 탐사에서부터 시작하여 시추하고 생산하고 그것을 가용할 때까지는 10년내지 15년을 봅니다. 그러면 거기다 원자력발전소 수명 20년을 합치면 대략 30년이라는 정책설정기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에너지 정책에 선행하고 있는 물가정책은 초단기정책입니다. 분기별로 물가를 어떻게 허용해야 하느냐 1년간의 물가를 한자리 수로 하느냐, 2자리수로 하느냐 그러면 이러한 초단기정책에 10년 이상의 장기정책을 중속시킨다는 것이 정책이론상 과연 합당한 일인가.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가 또한 기대할 수 있는가. 이러한 의문을 표시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장기정책을 기초로 해서 단기정책을 거기에 접목시키는 방법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두번째로는 우리 동력자원부에 대해서 제가 좀 불평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자부가 간판은 동력자원부로 걸고 있지만 인적 구성으로 보면 우리 에너지 소비량의 50%를 石油에 의존하고 있으면서 석유의 탐사나 개발같은 분야를 공부한 사람이 동력자원부에 계시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또 해외자원개발이나 북방자원정책등, 미래지향적인 전문인력도 별로 없습니다.

또 자원 에너지의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문 교육을 받은 인력을 등용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우리 동력자원부에는 이러한 에너지 기술을 가진 사람을 뽑아 들이지 않든지 벌써 1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물론 계시는 분들 중에는 개개의 부단한 노력에 의해서 자원 에너지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과 여러가지 공부를 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받은 사람, 공부하는 사람 하나도 뽑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동력자원부정책이 잘 되기를 자연스럽게 기대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엘리트 행정관료의 구성은 세계적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또 소위 얘기하는 韓國의 경제기적을 이룬 원동력이 우리나라 엘리트 행정관료입니다. 그러나 1960년도 우리나라 석유 소비량이 1년에 600만배럴, 그리고 국민총생산액은 20억달러 되던 유지한 단계, 혹은 1970년도의 우리나라 석유소비량이 7,000만배럴, 그리고 국민총생산액 80억달러 되던 단계에서는 행정관료들로서도 충분히 효율적인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89년도의 우리나라 석유 소비량이 무려 2억8,000만배럴입니다. 과거에 600만배럴과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우리 국민총생산액은 2천억달러입니다. 과거 20억달러에 비교해서는 100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제는 행정으로서 해결될 에너지정책이 아닙니다. 전문인재를 등용하고 관료를 전문화해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미 닦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대책도 준비도 없이 이러한 고유가시대 개방화 압력시대가 닦였으니까 방법은 그저 앉은 대로 매를 맞는 방법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과거 1, 2차 석유위기에서 몇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이고 신속하고도 가능한 행정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규제라든가 아니면 캠페인, 이런 것들이 시도되고 있는데 자세한 말씀은 생략하겠지만, 에너지를 비교적 많이 쓰는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이 에너지를 적게 쓰는 그룹에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에너지절약하자 하는 얘기가 우리 6공화국 민주화시대에 들어서서는 이제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 규제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훨씬 더 커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 규제나 캠페인은 모든 가용한 정책수단이 다 동원된 다음에 극약 처방으로서 지극히 단기적으로 시행되어야지 여기에 의존하려고 해서는 우리나라 아파트사태처럼 굉장히 큰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해결책은 제가 드린 말씀이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전문교육인력을 양성하고 또 그 사람들을 등용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나라 정책의 기본 골격을 짜는 초급 사무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빨리 마련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 위에 독립적인 동력자원행정이 상부기관의 어떤 간섭을 받지 않고 장기계획하에서 안정적으로 수립, 시행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에너지 위기로부터 우리 국가와 국민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별로 특별한 해결책을 말씀드리지도 못하면서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디만, 그 외의 여러가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많이 있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고유가,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의 개방화 압력은 우리가 처하고 있는 오늘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安柄勳교수님께서 소상하게 말씀하신 국제 환경규제, 탄산가스 배출량의 규제는 우리가 처한 내일의 중대한 문제입니다. 개방화가 농업과 유통업에 영향을 주는 어떤 압력, 우리가 심각한 하지만 우리의 존립과는 별로 관계없는 압력이라고 생각한다면 불과 5년후에 우리에게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탄산가스 규제는 우리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 목을 조이는 그러한 압력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의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내일의 문제를 앞서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가지고 나가야지 우리나라 에너지문제,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에너지 문제가 우리 국가 전체 우리 국민 복지를 발전시키고 또 보호하는 그러한 정책이고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것으로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일동 박수)

▲사회 : 토론의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張錫靖실장님께서 동력자원부에 대해서 불평의 말씀이나 조언이 있으시면 기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희망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서가 오는 사이에 張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張錫靖 :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에 오면 정부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들으려고 오는데 얘기를

듣다 보면 열을 받게 됩니다.

(웃음)

열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것은 얘기를 한번 하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간을 뺏는 것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죄송하지만 한두가지 제가 金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비축에 대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日本 같은데는 160일이고 몇일인데 우리는 60일을 한다 하는데 60일도 채 못되지 않느냐,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축을 하려고 그러면 비축은 바로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비축시설을 추가로 하고 있는데 예를들면 지금 가지고 있는 60일정도를 비축하려고 그러면 지금 돈으로 한 1조7,000억원쯤 들어갑니다. 이것을 달러貨로 계산하면 20억달러가 좀 더 들어가는 돈인데 우리가 작년 1년에 쓴 것이 대개 보면 한 50억달러어치의 기름을 사오는데 이러면 20억달러를 그냥 비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잡겨 놔두어야 됩니다.

비축이라는 것을 무엇 때문에 하느냐. 여러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일 큰 목적은 페르시아만 사태라든지 옛날의 2차 석유위기 같은 때, 돈을 아무리 지불해도 물건을 구하기가 어려운 이러한 사태가 되었을 경우에 대비하자는 것이 제일 큰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의 경우에 가격이 올랐을 때도 물건을 구해 쓸 수가 있다면 제 생각은 비축의 양이 상당히 적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축을 한다는 것은 물론 60일을 하든 90일을 하든 그런 비축은 그런 비상시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다 쓰는 것은 계속 비싸면 비싼대로 사다가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에 우리가 20억달러를 그냥 문혀놓고 몇년만에 한번씩 오는 위기를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하면 기름 20억달러이면 1년에 이자만 하더라도 10% 계산해도 2억달러가 넘습니다. 결국은 1년 지나면 10% 이자라 하더라도 기름을 현행가격보다 10%를 더 주고 사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년이 지나면 20%를 더 주고 사오면 비축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3년만에 그런 케이스가 오면, 30%를 더주고 물건을 살 수가 있다고 그러면 비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
**수송기간을 한 1개월 정도로하고 2개월 정도의 비축을 해두면
 물량적으로 어려운 공급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으로 비축량을 60일분으로
 정한 것입니다. 만일 필요물량의 50%를 구할 수
 있다면 60일은 120일을 가는 것입니다.**
 ”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페르시아만 사태같은 비상 사태가 발생하여 돈을 주고 빨리 구할 수 없는 이런 시점이 대개 얼마나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비축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90일, 160일 예를 들어서 1년을 비축한다고 그러면 1년만 지나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비축시설까지 합치면 1년에 20%가 비싼 기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제경쟁력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OECD회원국들이 소비자 기구로서 소비자 국가들이 IEA가 있는데 IEA의 국가는 90일을 비축의무로 했습니다. 서로 비축을 하자해도 비축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비축을 하면, 가령 이런 오일 위기가 왔을 때 그 비축유가 나오면 다른 사람은 반사이익으로 쉽게 물건을 구할 수만 있다면 굳이 비축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진국들이 나만 비축을 하면 비축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다.」 비축을 안한 사람이 프리라이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축의무를 90일씩 주어서 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IEA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비축수준은 우리 마음대로 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경제여력과 그것에 따른 코스트를 따져 볼때 얼마면 적당하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60일이면 대체적으로 비상시 수단을 강구할 수 있지 않느냐. 뭐냐하면 中東같은데서 만약 전쟁이 터져 기름을 구하기가 어렵더라도 대개의 경우는 한달 정도면 아주 하나도 못 구하는 경우는 없지 않겠느냐. 수송 기간을 한 1개월 정도 하면 2개월 정도의 비축을 해주면 그런 물량적으로 공급이 어려운 것을 대체로 가능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60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60일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우리가 소비하는 것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경우에 60일이 가는 것이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건의 50%를 구할 수 있으면 60일은 120일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돈 계산을 안하고 절대량으로 생각하면 많은 것이 항상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비용을 따져 볼 때는 적정수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따져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것이 160일분이면 돈이 얼마가 되느냐. 60일분이 20억달러이니까, 160일분이라면 세배가 되어서 60억달러인데 이렇게 되면 상당한 코스트가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저회도 생각하여 비축수준에 대해서 얼마가 적정하느냐 논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한시간 이상의 토론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돈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수준으로 보면 비축량의 시설이 원유가격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현재라는 것은 기름가격이 16달러내지 18달러일 경우에는 비축시설하는 것과 기름값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러니까 3,000만배럴을 비축하려고 하면 그 기름값과 시설비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60일분을 비축을 하려고 그러면 돈으로 따지면 120일분의 원유에 해당되는 돈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저유가시대에 기름값을 올렸으면 과소비를 막고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맞는 말씀이고 또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들이 석유기금 같은 것은 다 어디로 갔느냐. 몇 조를 거뒀다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데 석유기금을 왜 거두었느냐. 여러분이 다 물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내유가는 기름가격을

18달러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내 유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가가 얼마까지 내려갔느냐 심할 때는 13달러~12달러까지도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가는 18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원유가격을 외국에 비해서 높은 가격으로 유지해 온 것입니다. 그것이 저유가시대에 고유가를 대비하여 국내 유가를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더 올랐으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우리의 모든 산업활동은 우리 국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제조하여 다시 수출해야 되는데 수출코스트 구성요소중에 에너지가 상당히 큰 비중인데 외국의 기름값은 12~13달러 할때에 우리나라 25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국내가격을 올리면 우리나라 산업계가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18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유가를 관리해 올 때도 국제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가는데로 내려주고 올라 갈 때는 올라가는데로 하는 것이 경제원칙에 맞지 왜 굳이 18달러를 해 놓고 석유기금을 떼느냐 하는 얘기를 이런 모임에서 제가 여러번 받았습시다만, 그때 당시 18달러 했을 때, 국제가격이 15~16달러 이럴때는 한 2, 3달러 떼어가지고 비축도 하고 이런데 써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경제전반적인 것을 봐 가지고 국가적인 이해득실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한편만 보면 이론도 상당히 맞는 말씀이지만 다른 면을 형량화할 경우에는 그와 같은 논조가 100% 타당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동자부는 전문인력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어떻게 듣기에는 상당히 그런 것 같습니다만, 동자부에서 보면 기술직 공무원이 한 40%되고, 나머지는 일반행정직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학교의 연구라는 것과 또 연구소에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다 분야가 틀리는 것입니다. 저희도 보면 과학원 나온 분도 있고 일반 행정을 한 분도 많지만 밀바탕에 대학교의 교육이라고 하든지 대학원 교육의 그런 소양을 가지고 행정관료를 10년, 20년 한 분으로서 행정분야에 하나의 전문가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공무원이 이런 것을 집행할 때에 전문인, 연구소나 대학에 계신 분과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기본적인

이론 소통이 안될 정도의 소양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겠습니까만 그렇지 않다면 정부는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수용하고 듣고 하는 것을 반응을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 동자부 전체가 각 분야마다 전문인력인 박사학위라든가 이런 것으로 될 수 있게 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공무원의 구성이 그렇게 될 수는 없으니까 동자부는 에너지 연구원의 여러 박사들이 계셔서 그런 정책을 수립하는데 여러가지 이론적인 또는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 또 앞으로 정책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연구하는 데가 에너지연구원이고, 또 기술적인 면에서는 동력자원연구소라는 전문연구기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력을 100%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 동자부안에 실제로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은 조금 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밖에서는 동자부에 전문인력이 없다고 하지만 저희도 사람 하나하나 보면 상당한 인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자부가 도대체 전문가들이 얘기하면 듣지를 않는다 하는 것은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까마는 전문가가 없다 하는 말씀은 조금 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웃음)

▲사회: 질문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질문서에 서면으로만 하시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손을 드시고 나서 얼마든지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柄勳교수님께 나간 질문입니다.

앞으로 탄소세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런 가능성이 아주 크다면 그것이 실제 부과되기 전에 우리의 화석에너지 사용량을 많이 늘려놓는 것이 앞으로의 탄소세율을 조정하는 협상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의 질문입니다.

▲安柄勳: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것은 주로 IPCC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유엔환경기후기구와 국제기상기구(WMO)가 주관이 되어서 형성을 한 그러한 기구입니다.

거기에서 앞으로의 지구온난화에 대한 과학적 규명, 사회, 경제학적 영향, 또 하나는 대응방안, 이 세가지 분야로 스테디를 하게 되어 있어서 Sub그룹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세번째 리스펀스 그룹의 에너지

부분의 대응이 한 파트로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의 의장국이 현재 공동의장으로 日本과 中國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韓國은 그 어느 곳에도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 IPCC에도 초대를 받았습시다마는 국내에서는 지금 증금속이다, 상수도에 바빠 죽겠는데 무슨 이산화탄소나 해 가지고 움직임이 전혀 없다가 최근에 살아나고 있습니다마는 IPCC의 스테디에 의하면,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1988년도 토론토회의에서 거론되었던 것이 1988년 기준으로 그 때의 방출량을 기준으로 해서 2005년으로 가서 누적되게 보았을 때 '88년 수준보다 20% 더 아래로 내려가게 그러니까 그 사이에 패스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지요.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고 계속 유지할 수도 있지만 2005년에는 내려가도록 하자 하는 안을 그때 내놓아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파트에서는 호응을 많이 받고 지금도 그것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美國이나 동구라와 소련, 中國, 印度 그리고 석탄을 많이 쓰고 있는 나라들, 현재 분석을 해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걸으로는 반대라는 소리를 못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그것을 딜레이시키고 있는 입장입니다. 美國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걸으로는 상당히 과감하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쟁기는 사람들입니다.

그에 비하면 프랑스, 네덜란드,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상당히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프랑스는 아시다시피 CO₂가 안나오는 원자력 프로그램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도 팔아먹고 원자력도 팔아 먹으려면 CO₂를 강하게 부각시켜야 합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스가 있고 원자력도 있지요. 또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아까 그 캐나다 토론토 기준을 과연 역설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회의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얘기를 못했고 그런 방향설정만 하고 나서 현재로는 '88년, '89년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화이팅해야 됩니다.

특히 신흥공업국들이 애매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개도국들은 오히려 선진국들이 다 저질로 놓고 나가가지고 이제와서 우리와 같이 부담하자고 해가지고

개도국들의 입장은 많은 재정지원과 기술이전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동조 못한다 해가지고 많이 입장이 살아나 있습니다. 심지어는 印度에서 지난 4월에 개도국들만 모여가지고 입장천명을 했는데 그때 韓國이 초대를 다행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번째 모임이 내년도에 中國에서 있는데 거기에는 한국같은 나라는 이미 준공업국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임에 앞으로 참석시켜서는 안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잘못하면 韓國같은 신흥공업국의 입장이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기준년도를 무엇으로 잡느냐 이런 등등에 대해서 빨리 우리 나름대로의 입장을 천명하고 스테디하고 세워서 그것을 화이팅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臺灣이나 홍콩같은 나라는 하나의 독립된 주권국가로서 행사를 잘 못하고 있어서 같이 싸울 사람이 없습니다. 상당히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제가 가능한한 많이 하는 것이 좋다하는 차원보다도 빨리 우리 입장과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95년이나 '96년에 가면 우리나라에 석탄발전소, 유연탄발전소가 상당히 급히 들어와 가지고 CO₂ 방출량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우리가 미룰 수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의 바게이닝 룬이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 : 예. 감사합니다.

金泰由교수님께 油開公에 계시는 분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 특히 정유산업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 정부 국영회사, 그 다음에 또 정유업계의 합리적인 대응방안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金泰由 : 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대비해서 바람직한 정부, 그리고 국영석유기업, 정유업계, 유통업계, 여기에 대해서 역할 분담 방향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밖에는 현재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력 있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오늘과 같은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 자신이 평소 생각한 데 대한 여러가지 데이터라든가 수치를 준비를 해오지도 않았습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언급해주신 安柄



잘못하면 韓國같은 신흥공업국의 입장이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기준년도를 무엇으로 잡느냐
 하는 등등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빨리 우리나라대로의 입장을 천명하고
 연구해서 그것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勳박사님께서 조금 더 자세한 언급을 해주시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 혹시 안선생님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다음 기회에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安柄勳 : 제 판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본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질문하신 이유가 그것이 너무 개괄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金泰由 교수의 또 다른 의견이 있을 것을 혹시 예상해서 물으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개괄적인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실제로 우루과이라운드 문제는 결국 시작이 유통단계 문제이기 때문에 유통쪽에서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석유부문에 있어서 유통업에 대한 합리화라고 할까 개선이라고 할까 이 문제가 아마 가장 예민한 문제이고 그동안 여기는 주로 정유사들이 와 계십니다만, 또 유통업계, 대리점이라든가 석유유통업쪽에서는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그 문제를 아마 일률적으로 여기서 얘기드리는 것은 원사이드 같은데 다행히 여기 정유업계에서 많이 나와 계시니까 어떻게 보면 그쪽 사이드에서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평소 생각은 먼저 그 전에 저희가 한번 해 보았던 스토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자율화를 그냥 추진해 버리게 되면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항간에는 큰 회사 들어서 작은 회사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냐. 또는 유통업도 완전히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원천적으로 유통업 또는 대리점도 있습니다만 중간단계라는 것은 소비자그룹과 생산자간의 커백션이 제대로 안될때 그것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유통단계가 설정이 되고 거기서 여러가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아마 과거의

그런 차원에서 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이제는 여러 면에서 생산자 특히 정유업계에서 소비자들과 직접 다룰 수 있는 채널도 많이 생겼을 것이고 앞으로는 체질강화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방향에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대리점과 같은 그 부분의 역할이 아까 얘기하던 것에서 조금 빛나갔습니다마는 대리점을 놓고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그 스테디할 때 유통부문에 있어서의 거래 조건에 따라서 청산하는 날이라든지 이것이 상당히 예민하게 수급패턴이 정유사간에 왔다갔다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하에서 그냥 풀게 되면, 말하자면 상당히 들쭉날쭉, 다시 말하면 그 과도한 경쟁으로 해가지고 지속 가능한 그런 것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시뮬레이션이니까 저희가 현실적으로 주장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거기서 느끼는 것은 일단 우리가 자율화하 어떤 의미에서 풀다 할 때에는 유통쪽에서의 그런 정리가 되지 않고서는 힘들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통 특히 대리점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 역할이 없느냐, 또 이제까지 기존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그리고 정치적인 차원까지도 호소되고 아마 여러가지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프 더 레코드도 말씀드리면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커백션이 별로 필요치 않은 차원에서 필요가 없다면 지금 수출입 업무쪽으로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그쪽으로의 역할이 커질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아주 뒷편의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루과이라운드가 얼마나 연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체질개선, 체질강화라는 그런 차원에 필요한 일들이라면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

는 그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사회: 예, 감사합니다.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지금 해주십시오.

질문이나 코멘트가 없으시면 오늘 세미나를 종결하기에 앞서서 플로어에서 의견을 듣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발표자 또 토론자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이 몇개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투자비의 적정한 조달방안에 구상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또 현재 시행중에 있는 가격규제, 또 이윤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겠다는. 이미 그 가격규제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내년서부터 이것을 자율화하는 쪽으로 적극 방향을 바꾸겠다 하는 방향제시도 이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현재 활용하고 있는 이 석유사업기금도 앞으로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하는 제의도 있습니다.

특히 이중에서 오늘 세미나 주제인 고유가시대의 석유산업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해 두고 보았을 때, 여러가지 정책대응방안을 우리가 현실

화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金泰由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투자비를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사실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서 투자비 조달방안에 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이)

말씀이 없으시면 혹시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석유제품 가격결정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이)

말씀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시간 세미나에 진지한 발표와 토론을 위해서 참여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에 수고를 해주신 세분 전문가와 또 토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신 張錫靖실장님과 金泰由교수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세미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사랑의 기쁨을 간직하려면

애정에는 두가지가 있다.

혼자 독점하고 싶은 강렬한 소유욕에 속하는 애정은 불행의 원인이 되기 쉽다.

담담하면서 다정한 관심과 배려, 이러한 애정이 오래가고 또 행복을 보내준다. 행복을 복돋우는 애정은 사람을 대하기 좋아하고, 남의 특징이나 개성을 존중하고 남의 장점을 기쁘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나와 접촉하는 사람의 이익과 기쁨에 대해서 자유를 주려고 활명징, 결코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의 이익과 기쁨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남을 대할 때 이러한 태도를 가지는 사람은 행복된 위치에 서있는 사람이다. 남의 것을 탐내고 시기하고

자기에게 없는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은 적어도 그 마음 때문에 불행한 위치에 서있는 것이다.

피로움이라는 것은 늘 독점하고 싶은 욕심,

남의 장점이나 행복을 자기 밑으로

깎아 내리고 싶어하는 데서 많이 생긴다.

남의 특색과 장점 때문에 내가 피로와할 것은 없는 것이다.

남의 슬픔이나 피로움 때문에

내가 슬퍼하거나 피로와 할 필요가 없듯이,

늘 자기의 위치를 자기대로 보전할 필요가 있다.

사람은 좋은 친구가 생기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나 스스로가 남의 친구가 될 때에 행복한 것이다.

(B. 러셀)